

보도 일시	2021. 12. 31.(금) 09:00	배포 일시	2021. 12. 31.(금)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은복 (044-203-2711)
		담당자	사무관 김태훈 (044-203-2715)

##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예술활동, 수입은 감소했으나 예술활동 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증가 - 2021 예술인 실태조사(2020년 기준) 주요 결과 발표 -

- 예술인의 55.1%가 전업 예술인, 이 중 78.2%가 자유계약자(프리랜서)
-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예술활동(3.5회↓), 예술활동 수입(526만 원↓) 감소
- 예술활동 계약 체결 경험(7.6%p↑),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21.3%p↑) 증가
- 예술 활동 중 예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 국민 일상생활보다 높아(14.7%p↑)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 예술인 실태'를 조사하고 주요 지표 결과를 발표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22만 9천명) 중 예술인 총 5,109명을 1:1 면접, 유선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했다. 조사 기준시점은 2020년이다.

### <2021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 ※ 2021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개요/목적)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에 따른 법정조사 /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 (조사 기간/방법) '21년 9~11월 / 1:1 면접, 전화, 온라인 조사 \* 조사기준 '20년
- (조사 표본) 14개 예술분야, 전국 17개 시도 예술인 5천명
  - \* 모집단: ①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참여 예술인, ③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등 약 22만 9천명

## 자유계약자 비율, 전업과 겸업 예술인에서 모두 증가

이번 조사 결과, 예술인의 55.1%가 전업 예술인이라고 응답했고 이는 2018년 조사(2017년 기준)보다 2.3%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율은 전업 예술인 중에서는 78.2%(2018년 76.0%), 겸업 예술인 중에서는 72.2%(2018년 67.9%)로 3년 전보다 모두 높아졌다.

개인 예술활동 수입 감소, 예술인 가구 소득은 일반 국민 가구 소득보다 낮아  
분야별 활동 수입은 건축·만화·방송연예 높고, 사진·대중음악·국악 낮은 편

2020년 한 해,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3.8회로 3년 전(7.3회)보다 3.5회(48%) 감소했고,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755만 원으로 3년 전(1,281만 원)보다 526만 원(41%) 감소했다. 월 100만 원 미만의 비중은 86.6%(2018년 72.7%)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대중음악, 국악 분야는 수입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수입의 편차가 있었다. 또한 예술인 가구의 연간 총수입은 평균 4,127만 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6,125만 원(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약 2천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예술인 4명 중 1명(26.9%)은 저작권 수입이 있으며 대중음악과 만화, 문학 분야는 저작권 보유 현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술활동 관련 설문에서는 예술인의 14.4%가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3년 전보다 8.7%포인트(p) 하락한 결과가 나왔다.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6.3%로 지난 2018년 결과(49.5%)보다 6.8%포인트(p) 증가했다.

<표>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 지표 비교

주요 지표	2018년	2021년	'18년 대비 증감
1. 전업예술인 비율	57.4%	55.1%	2.3%p ↓
2. 전업예술인 중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율	76.0%	78.2%	2.2%p ↑
3. 예술작품 발표 횟수	7.3회	3.8회	3.5회 ↓
4. 예술인 연간 예술활동 개인 수입	1,281만 원	755만 원	526만 원 ↓
5.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 보유	25.0%	26.9%	1.9%p ↑
6. 표준계약서 활용률	44.7%	66.0%	21.3%p ↑

## 예술활동 계약 체결 경험 7.6%포인트, 표준계약서 활용률 21.3%포인트 증가

1회 이상 예술작품을 발표한 예술인 중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54.3%(서면계약 48.6%, 구두계약 5.7%)로 3년 전 46.7%(서면계약 41.4%, 구두계약 5.3%)보다 7.6%포인트(p) 증가했으며, 서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66.0%로 3년 전(44.7%)보다 21.3%포인트(p) 증가했다.

## 예술인 스트레스 인지율, 예술활동 양성평등 수준 새롭게 조사

예술활동 중 업무상 상해 경험은 감소(2018년 6.2%→2021년 4.9%)했고,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증가(2018년 23.9%→2021년 36.3%)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2개 조사 항목, 예술활동 중 예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45.5%)은 국민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율(30.8%, 국민건강통계)보다 높았으며, 예술활동 중 양성평등 수준은 ‘남녀평등’하다는 응답이 65.2%, ‘여성불평등’이라는 응답이 26.8%(남성 응답 10.9%, 여성 응답 41.1%)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낮아진 예술활동 수입, 높은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준비금 등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1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2. 2021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요약



□ **조사 개요**

- (조사목적)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근거)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실태조사) \* 3년마다 실시
- (표본) 14개 예술분야, 전국 17개 시·도 예술인 5천명
- (모집단) ①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 예술인, ③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등 약 22.9만명
- (조사기준시점) '2020년 1월~ 12월 \* 본 조사기간: '21년 9~11월
-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수행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조사기관)
- (조사내용) 총 27개 문항(54개 세부문항) ▲예술활동분야(8문항), ▲고용형태 및 창작환경(5문항), ▲생활 및 복지(9문항), ▲성별·나이 등 일반적 특성(5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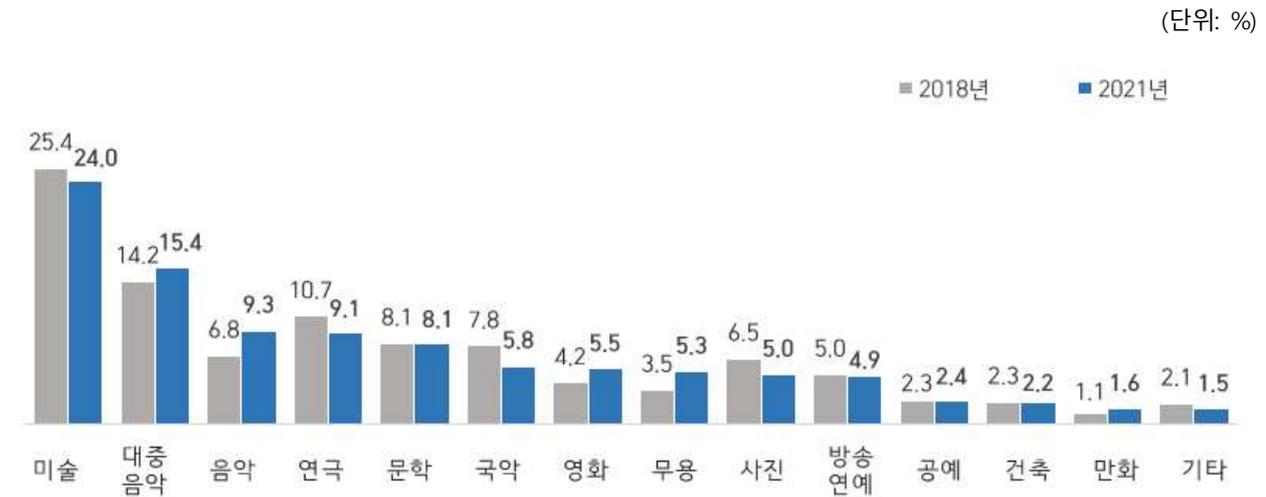
**< 2018, 2021 예술인 실태조사 비교 >**

구 분	2018 예술인 실태조사	2021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대상	<b>14개 예술분야 예술인</b>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모집단	<b>17.9만 명</b> -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참여 예술인 -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b>22.9만 명</b> -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참여 예술인 -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 전국 지자체 문화예술 사업 참여 예술인(신규)
표본크기	<b>4,953명</b>	<b>5,109명</b>
표본설계	조사 모집단의 지역별·예술분야별 분포를 고려한 제곱근 비례배분	
표본추출	14개 예술분야, 17개 시도별 층화무작위추출	
조사방법	<b>1:1 면접조사/온라인조사</b>	<b>1:1 면접조사/전화조사/온라인조사</b>

1.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분야

- ▶ 현재 활동하는 주 예술분야는 '미술' 24.0%, '대중음악' 15.4%, '음악' 9.3% 순임  
(2018년 : 미술 25.4%, 대중음악 14.2%, 연극 10.7%)

[그림]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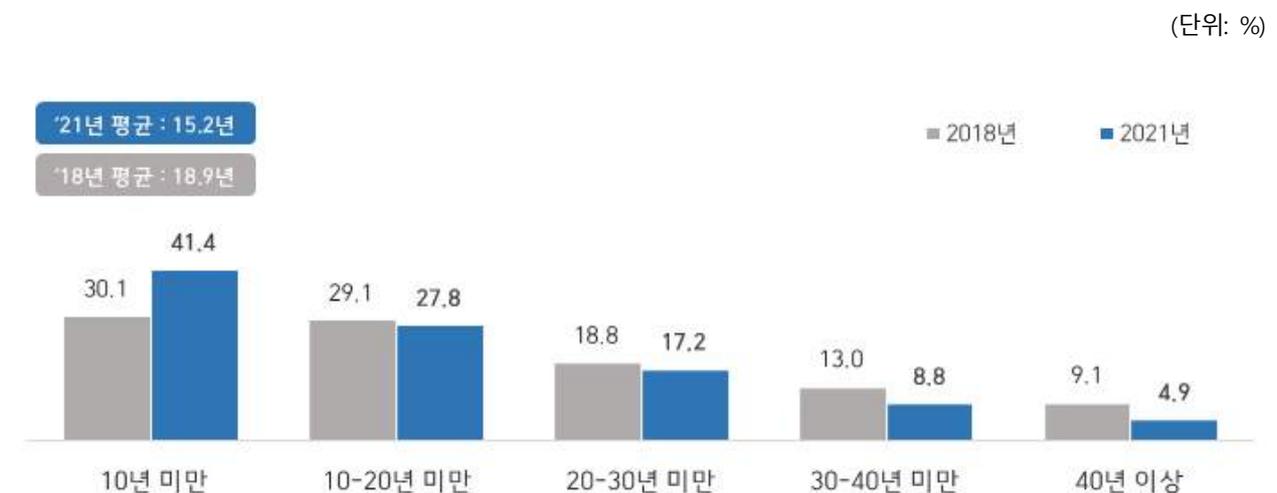


※ 미술분야 : 디자인 포함

2. 예술분야(주활동) 입문 이후 기간

- ▶ 예술분야 입문 이후 기간은 '10년 미만' 41.4%, '10년-20년 미만' 27.8%, '20-30년 미만' 17.2% 순임  
(2018년 : 10년 미만 30.1%, 10-20년 미만 29.1%, 20-30년 미만 18.8%)

[그림] 예술분야(주활동) 입문 이후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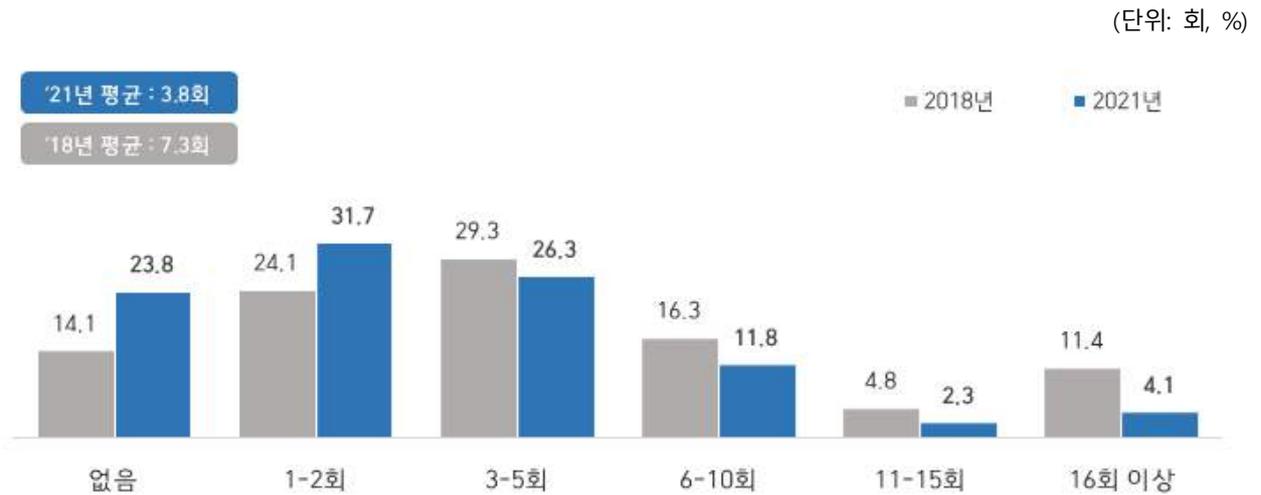


### 3.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

#### ㉠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평균 3.8회'임 (2018년 : 7.3회)

- 2020년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음악이 평균 6.4회로 가장 많았고, 국악 5.8회, 방송연예 4.7회로 높은 편인 반면, 사진은 평균 2.4회로 가장 낮음

[그림]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



[표] 분야별 예술작품 발표 횟수

(단위: 회)

분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발표횟수	4.0	3.2	2.6	2.4	2.5	6.4	5.8
분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발표횟수	3.9	4.7	4.1	3.0	3.0	3.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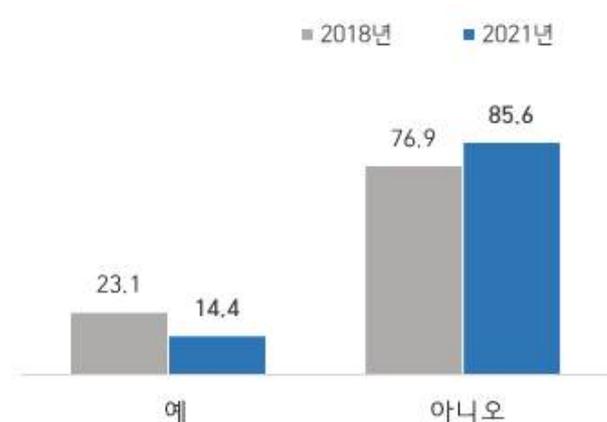
### 4. 지난 1년간 외국 예술활동 경험

#### ㉠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4.4%임 (2018년 : 23.1%)

- 만화(22.7%)분야 외국 예술활동 경험은 가장 높은 반면 방송연예는 6.1%로 가장 낮음

[그림] 외국에서의 예술활동 현황

(단위: %)



[표] 분야별 외국 예술활동 현황

(단위: %)

분야	경험 있음	분야	경험 있음
문학	10.4	대중음악	16.8
미술	19.0	방송연예	6.1
공예	17.6	무용	13.3
사진	15.5	연극	7.0
건축	14.6	영화	14.8
음악	13.4	만화	22.7
국악	12.3	기타	8.1

## 5. 개인 창작공간 보유 현황

### ➔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 보유 응답은 56.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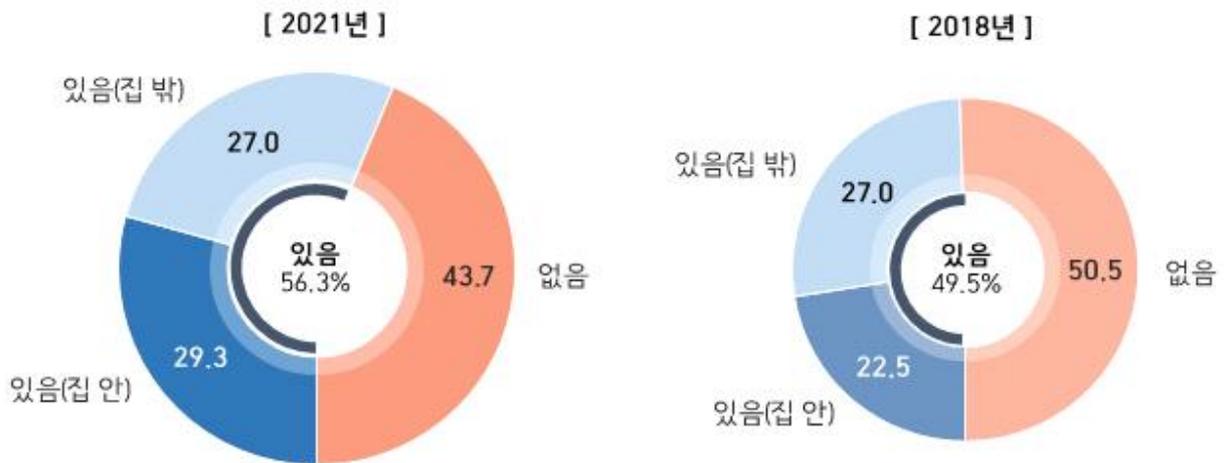
- '집 안에 창작공간 보유한 경우 29.3%' '집 밖 별도 공간에 보유' 한 경우 27.0%로 나타남

### ➔ 개인 창작공간의 보유형태는 '월세'가 43.4%로 가장 높음 (2018년 : 44.5%)

- 개인 창작공간의 보유형태는 '자가'와 '무상임대'는 증가하고 '전세', '월세'는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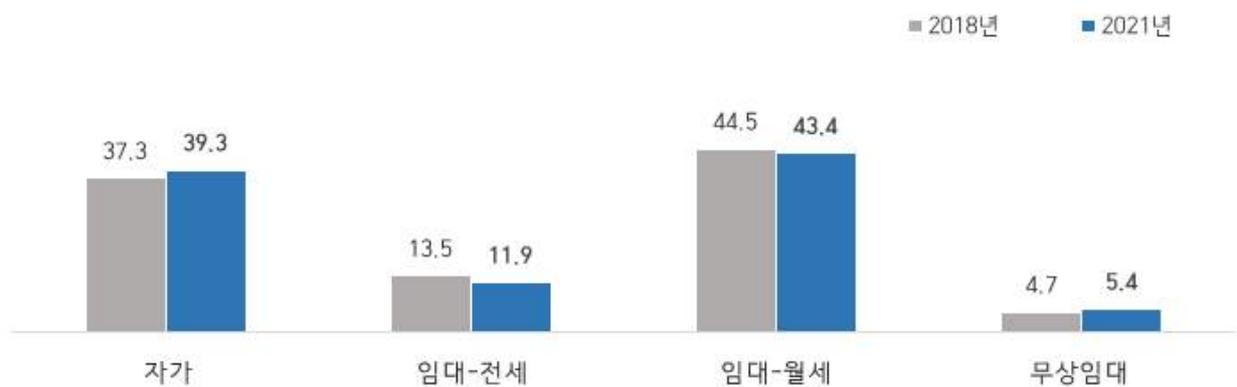
[그림] 개인 창작공간 보유 현황

(단위: %)



[그림] 개인 창작공간 보유 형태

(개인 창작공간 보유자, 단위: %)



## 6. 전업 예술인 비율

전업 예술인 비율은 55.1%로 2018년(57.4%) 대비 2.3%p 감소함

[그림] 전업 예술인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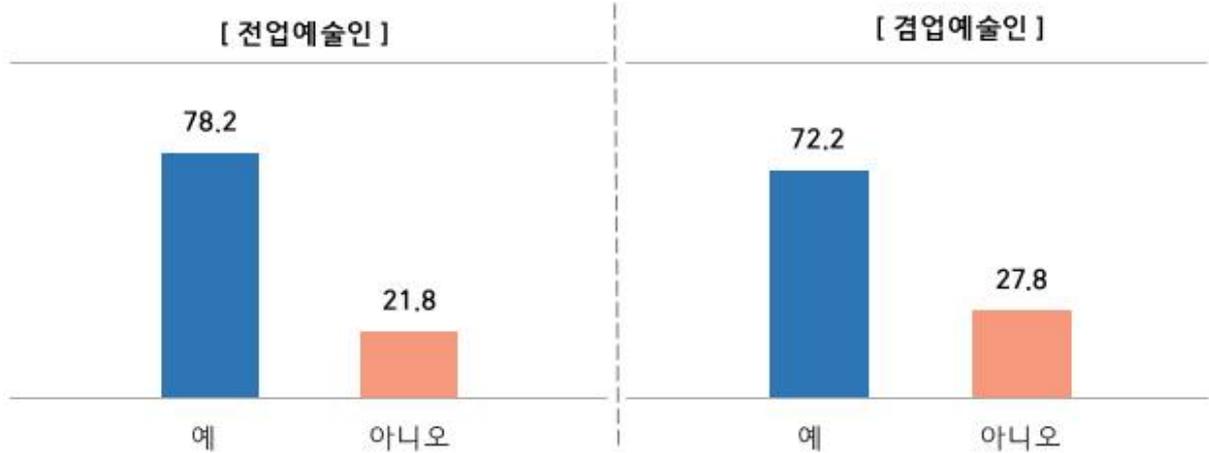


## 7.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종사여부

전업 예술인 중 자유계약자는 78.2%, 겸업 예술인 중 자유계약자는 72.2% 임

[그림]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종사여부

(단위: %)



분 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전업예술인	73.5	78.2	73.3	80.9	18.4	77.8	74.4
겸업예술인	57.6	66.7	72.4	69.5	42.5	71.4	73.9
분 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전업예술인	89.3	91.5	72.7	80.2	82.3	87.7	47.2
겸업예술인	81.0	92.9	79.1	80.6	79.5	72.0	43.8

## 8.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예술작품 발표 1편 이상인 자)

●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은 54.3% 가 경험 '있다'고 응답함 (2018년 :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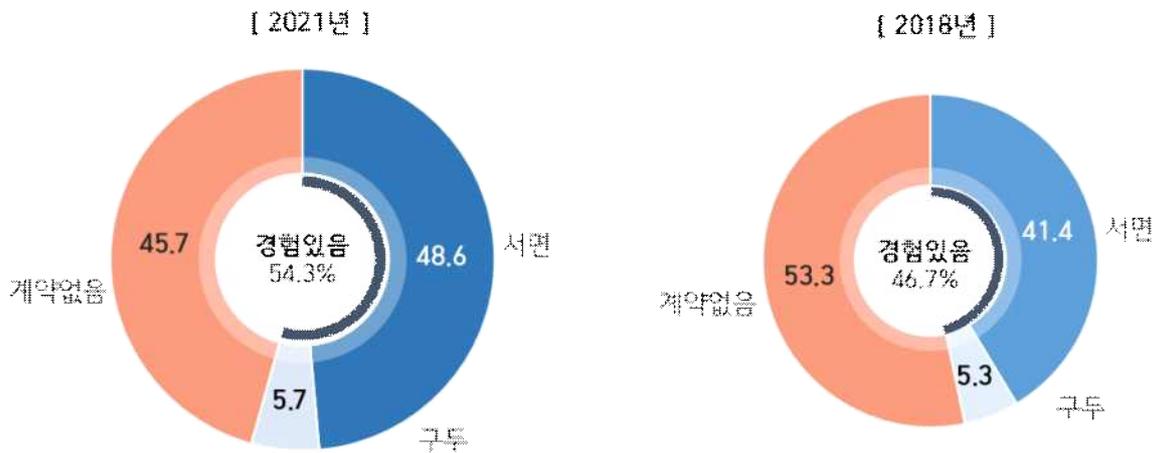
그 중 서면계약은 48.6%,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은 5.7%임

- 지난 1년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자'는 54.3%이고, 그 중 서면계약 경험률은 48.6%, 서면없이 구두계약 경험률은 5.7%임

- 만화(70.7%), 영화(68.9%), 연극(67.1%) 분야에서 특히 서면계약 체결률이 높게 나타남

[그림]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

(예술작품 발표 1편 이상인 자, 단위: %)



분 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계약 경험	34.3	42.4	32.9	31.1	61.4	58.5	51.2
서면계약	31.9	37.3	30.6	28.0	55.9	52.0	48.8
구두계약	2.4	5.1	2.3	3.1	5.5	6.6	2.5
분 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계약 경험	50.1	71.1	54.7	71.1	79.2	80.9	52.5
서면계약	40.6	64.8	50.7	67.1	68.9	70.7	46.3
구두계약	9.5	6.3	4.0	4.0	10.3	10.2	6.3

## 8-1. 예술활동 관련 계약 중 표준계약서 유무

### ④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 중 표준계약서는 66.0%임 (2018년 : 44.7%)

- 연극(75.0%), 문학(70.6%), 영화(70.5%), 국악(70.4%) 분야의 표준계약서 비율이 높음

[그림] 예술활동 관련 표준계약서 여부

(서면계약 체결자, 단위: %)



분 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표준계약서	70.6	67.9	43.6	65.1	67.8	64.7	70.4
분 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표준계약서	56.8	56.5	67.5	75.0	70.5	47.8	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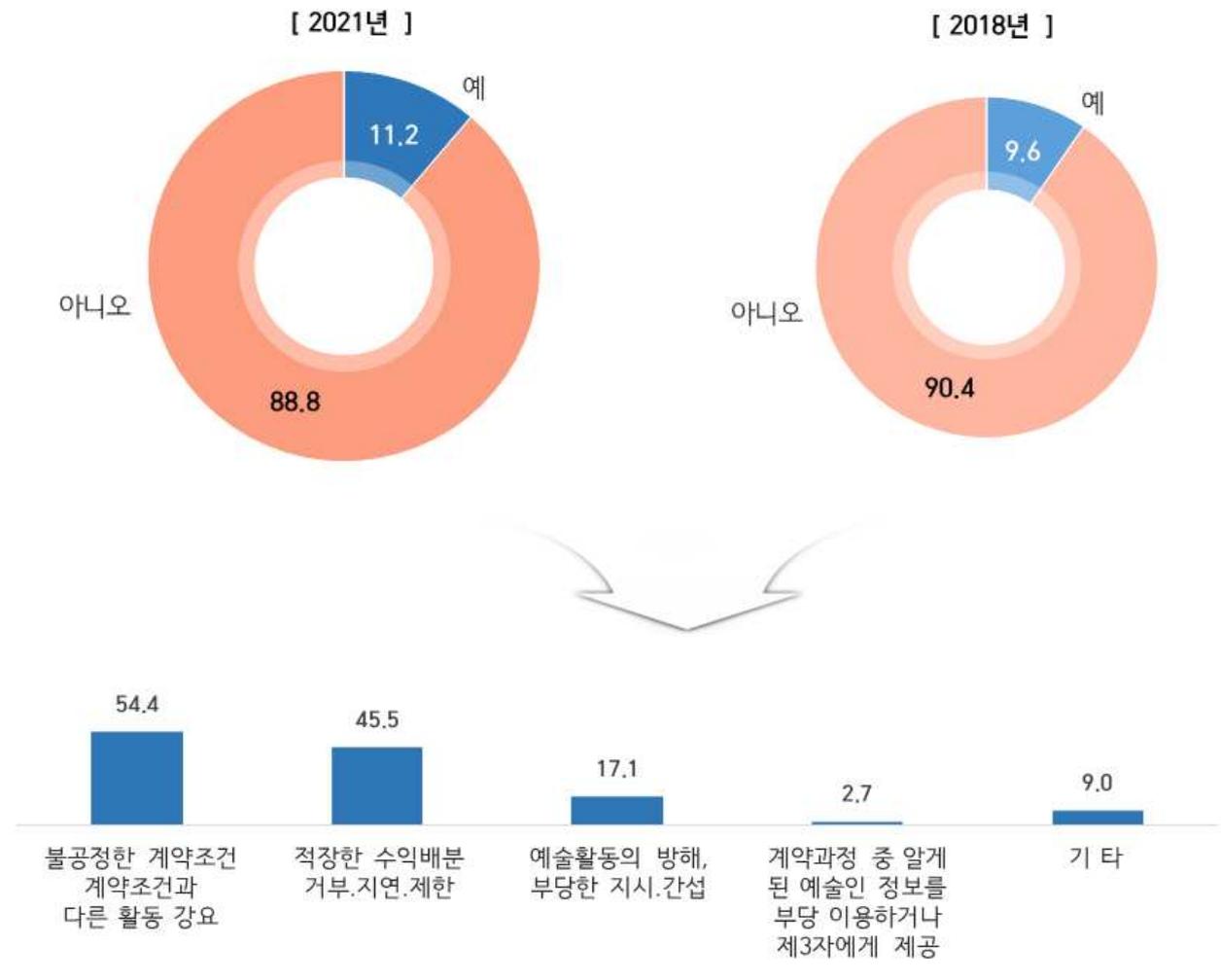
## 8-2. 부당한 계약 경험

☉ 지난 1년간 부당한 계약 '경험 있음' 응답은 11.2%임 (2018년 : 9.6%)

- 계약 체결 경험자 중 '부당한 계약 내용이 있다'는 응답자는 11.2%임
- 부당한 계약 내용으로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계약조건과 다른 내용 강요' 54.4%,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 45.5%로 나타남

[그림] 부당한 계약 경험률

(계약 체결 경험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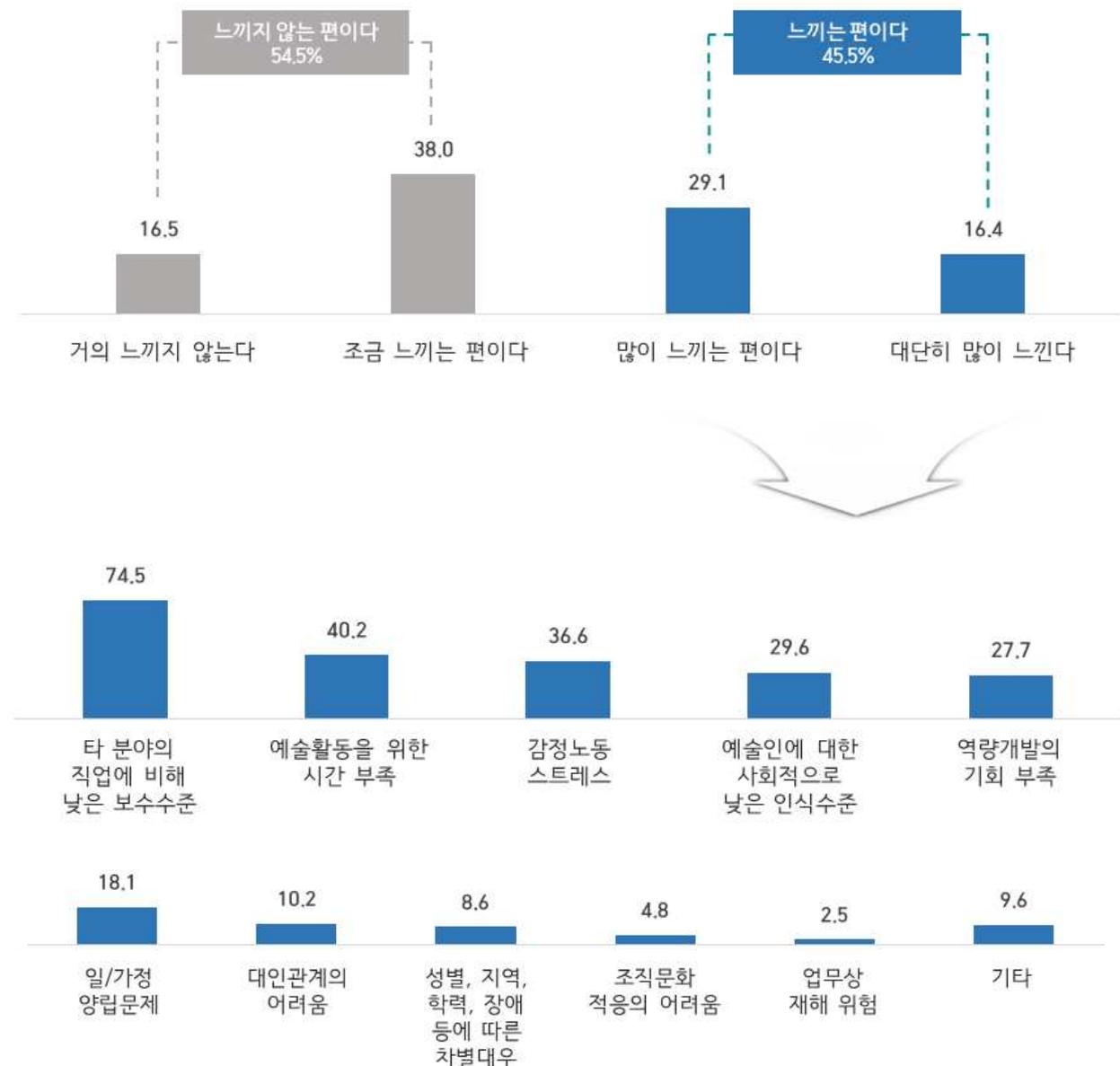
## 9. 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요인

### ④ 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다' 라고 45.5% 응답함

- 스트레스를 느끼는 요인은 타 분야 직업 대비 낮은 보수(74.5%), 예술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40.2%), 감정노동 스트레스(36.6%),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낮은 인식(29.6%)이 상위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남

[그림] 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요인(1+2+3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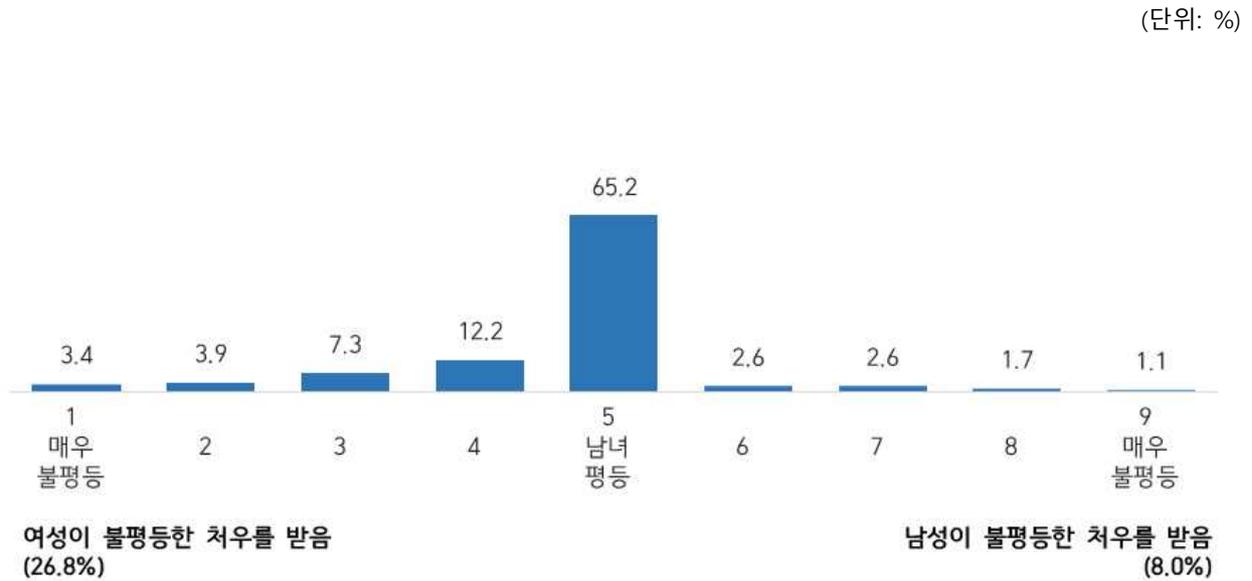


## 10. 예술환경에서 양성평등 수준

### ④ 예술환경에서 양성평등 수준은 여성이 남성보다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여성 불평등' 응답이 26.8%로 '남성 불평등' 응답(8.0%)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 불평등' 응답률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남녀 평등' 응답률이 높음

[그림] 예술환경에서 양성평등 수준



구 분	여성 불평등 ①+②+③+④	남녀 평등 ⑤	남성 불평등 ⑥+⑦+⑧+⑨
전 체	26.8	65.2	8.0
남 자	10.9	75.5	13.6
여 자	41.1	55.9	3.0
30 대 이하	31.7	60.1	8.2
40 대	31.1	61.6	7.3
50 대	23.5	67.9	8.6
60 세 이상	16.9	75.2	8.0

## 11.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

- 2020년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은 '평균 4,127만원'임 (2017년 : 평균 4,225만원)
- 예술인 가구 총 수입 '2천만원 미만'이 23.2%이고, '7천만원 이상'도 13.5%로 편차가 큼.

[그림]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  
(단위: %)



분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평균(만원)	4,149.7	3,935.0	4,263.4	3,813.5	9,316.6	4,107.4	3,518.4
분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평균(만원)	3,652.3	4,599.1	4,248.6	3,301.6	3,217.3	4,426.8	3,502.9

※ 중앙값 : 모든 측정값을 크기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정 가운데 위치하는 값

## 12.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

- 2020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은 평균 '755만원'임 (2017년 : 평균 1,281만원)
- '없음'이 41.3%로 가장 높았고, '5백만원 미만' 28.3%, '1-2천만원 미만' 9.2% 순임
- 예술활동 개인 수입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86.6%에 해당함

[그림]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  
(단위: %)



분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평균(만원)	471.7	487.3	775.3	273.2	3,821.7	411.8	380.9
분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평균(만원)	373.5	1,808.6	519.5	509.4	900.0	2,195.8	5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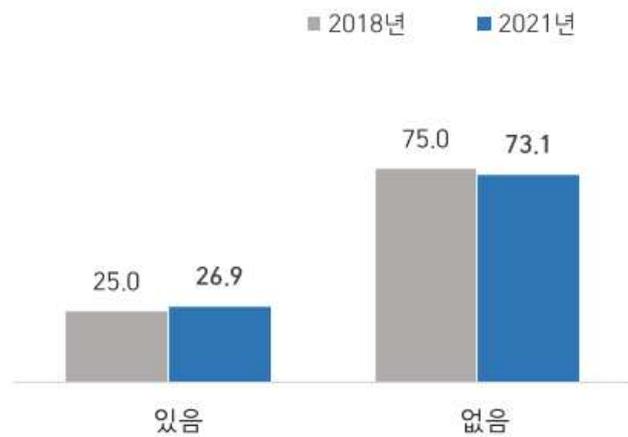
※ 중앙값 : 모든 측정값을 크기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정 가운데 위치하는 값

### 13. 저작권(저작권인접권) 보유 현황

- ▶ 저작권(저작권인접권) 보유에 따른 수입이 있는 경우는 전체 26.9%임 (2018년 : 25.0%)
  - 대중음악(75.0%), 만화(59.9%), 문학(43.3%) 분야 저작권인접권 보유 현황이 높은 편임

[그림] 저작권(저작권인접권) 보유 현황

(단위: %)



[표] 분야별 저작권(저작권인접권) 보유 현황

(단위: %)

분야	보유함	분야	보유함
문학	43.3	대중음악	75.0
미술	9.8	방송연예	34.8
공예	5.9	무용	2.9
사진	9.5	연극	9.0
건축	17.4	영화	30.5
음악	24.3	만화	59.9
국악	14.7	기타	6.7

### 14. 업무상 상해 경험

- ▶ 예술분야 업무상 상해 경험이 있는 비율은 4.9%임 (2018년 : 6.2%)
  - 무용(16.8%) 분야 상해 경험의 비율이 높은 편임

[그림] 업무상 상해 경험률

(단위: %)



[표] 분야별 업무상 상해 경험률

(단위: %)

분야	보유함	분야	보유함
문학	1.8	대중음악	3.1
미술	3.0	방송연예	7.2
공예	6.1	무용	16.8
사진	4.8	연극	8.8
건축	0.6	영화	4.3
음악	5.0	만화	8.4
국악	4.1	기타	1.1

## 15. 예술활동 경력 단절 현황(경험, 이유)

➔ 입문 이후 1년 이상 예술활동을 포기한 상태인 '예술경력 단절' 경험자는 36.3%임 (2018년 : 23.9%)

- 영화, 방송연예, 연극, 대중음악 분야의 예술경력 단절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예술 활동을 포기한 이유로는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69.6%, '출산/육아' 9.0% 순으로 나타남

[그림] 예술경력 단절 경험

(단위: %)



[표] 분야별 예술경력 단절 경험

(단위: %)

분야	있음	없음	분야	있음	없음
문학	25.8	74.2	대중음악	45.5	54.5
미술	33.8	66.2	방송연예	46.7	53.3
공예	31.8	68.2	무용	31.1	68.9
사진	25.9	74.1	연극	46.1	53.9
건축	14.6	85.4	영화	57.0	43.0
음악	27.7	72.3	만화	37.5	62.5
국악	29.3	70.7	기타	37.4	62.6

[그림] 예술경력 단절 이유

(예술경력 단절 경험자, 단위: %)

